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자료와 연구

곽 충 구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1. 머리말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 이후 잊혀진 민족사의 일부를 재조명하는 일이 많았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원동으로의 이주 그리고 1937년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및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가 그 하나이다.

1990년 이전만 하더라도 중앙아시아 한인에 대한 연구는 자료를 쉬 접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정 러시아 시기로부터 강제 이주 이후의 고려말¹⁾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먼저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뻬뜨로와(1956), 고송무(1980), Adami(1982) 등은 제정 러시아 시기 원동 거주 한인들의 언어를 수록한 문헌을 단편적으로 소개하였다.²⁾ 이

1) 킹, 러쓰·연재훈(1992:84-85), 김필영(2004:15-18)에 의하면 ‘고려’, ‘고려어’, ‘고려말’, ‘고려사람’이라는 명칭은 이미 1920년대부터 사용되었다 한다.

주 제 어: 고려말, koin , 카잔, 함북방언, 육진방언, 언어섬
koiné, *Koryeo-mal*, deportation, Central Asia, the Russian Far East,
Yukcin dialect

들 문헌에 실려 있는 한국어에 대한 연구는 곽충구(1986a,b, 1987)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시기에 J.R.P. King교수도 이들 문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러시아는 물론 미국 등에 산재해 있는 제정 러시아 시기의 한국어 관련 문헌들을 발굴하고 그 문헌에 수록된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고려말 조사도 병행하였다.³⁾ J.R.P. King(1987)은 제정 러시아 시기 카잔에서 간행된 문헌의 한국어와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조사한 고려말을 소개하고 그 언어적 성격과 특징을 밝힌 글이다.

고려말의 선대가 되는 원동의 한국어는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줄곧 문헌에 기록으로 남아 전하고 있다. 이 원동의 한국어는 그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이지만 국어사나 국어학사의 면에서도 주목을 받을 만한 존재이다. 최초의 외국어 대역사전이 1874년에 이 원동 한인들의 한국어를 바탕으로 편찬되었으며, G.J. Ramstedt가 한국어의 역사를 재구하고 알타이어 계통론을 수립하는 데에도 이 한국어가 이용되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은 모국어로부터 격리된 채 일종의 언어섬(language island)을 이루고 독자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는 점, 우회적으로나마 북한의 함경도 지역 방언을 조사·연구할 수 있다는 점, 국어방언학이나 국어사 연구의 유의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주에 의하여 형성된 koiné의 한 사례를 보여 준다는 점 등으로 해서 주목을 받았다. 그리하여 1990년 이후 몇 차례의 실증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킹, 러쓰·연재훈: 1992, 이기갑·김주원 외: 2000). 또 사라져 가는 고려말 구술 발화를 채록하여 영구 보존하려는

2) 이 글에서는 한국어를 채록한 문헌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구소련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에 대해서는 L. Koncevich & 菅野裕臣(1971), 菅野裕臣(1971), J.R.P. King(1991a,c) 및 다음 문헌을 참고. Akademija Nauk SSSR, ordena trudovogo kpasnogo znamenii institut Vostokovedenija, Bibliografija Korei 1917-1970, Izdatel'stvo Nauka, Moskva, 1981.

3) J.R.P. King 교수는 이들 문헌의 한국어 자료에 주석을 붙여 몇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필자가 2003년에 본 것은 제1권(원고본)이다.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V.1 : Amateur Sources.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고려말은 이제 사멸할 운명에 놓여 있다. 때문에 이 언어와 관련된 일반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자료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고려말의 선대가 되는 원동의 한국어 자료 및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자료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연구사적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소략하게 언급해 보고자 한다.

2. 고려말 자료

2.1. 원동(遠東, Dalinyj Vostok, The Russian Far East) 거주 한인들의 고려말 자료

2.1.1. 푸칠로의 *Opyt Russko-Korejskago Slovarja*(『로한주연』)

1863년 함북 경흥 출신인들이 연해주 포시에트 인근의 짜진헤(Tizinhe, 中國名 鷄心河)⁴⁾로 이주한 이후부터 국권을 강탈당한 1910년 이전까지 러시아의 원동에는 두만강 연변 출신인을 비롯 10만을 헤아리는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주 초기에 해당하는 1874년 제정 러시아의 행정관이었던 푸칠로는 이들 한국인과의 소통을 위하여 최초의 외국어 대역사전인 *Opyt Russko-Korejskago*

4) 이에 대해서는 *Opyt Russko-Korejskago Slovarja*(S. Peterburg: 1874), Predislovie iv 및 *Rusko-Korejskie Razgovory*(Kazan: 1904), Predislovie i를 참고. 한편, 러시아 극동 연구소의 페트로바 선생은 필자에게 이 지명이 ‘鷄心河’라는 중국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한 바 있다. 또, 뒤바보, 俄領實記, 독립신문(상해판), 민국2년 3월 1일(제49호)에는 ‘짜진헤’를 ‘地新墟’라 하였다(李尙根, 韓人 露領移住史 研究(탐구당, 1996), pp.34-36에서 인용함). “地新墟의 개척 기원 사일구칠년 갑자춘에 무산 崔運寶, 경흥 梁應範 二人이 가만히 두만강을 건너 훈춘을 경유하여, 지신허(此는 연추 등지)에 래왕하여 신개간에 착수 하니 서대륙을 초발견한 콜럼버스의 奇功과는 擬論할 수 無하나 옛재던지 古來의 鎖國 頑夢을 先破하고 ……”. 뒤바보(계봉우)는 이주 시점을 1864년 봄이라 하였다. 아마도 1863년은 음력인 것으로 생각된다.

『로한즈뎌』	쪽수	현대어	『朝鮮偉國字彙』 속의 『倭語類解』
가슴거리/흉띠	328	말안장의 가슴거리	흉띠(胸帶:下17a)
벤너리/선판지	409	갑판	선판지(船板子:下18b)
거렁이/걸인이	359	걸인	걸인(乞人:上15b)
귀박소/총명호오/총명한	537	총명하다	총명(聰明:上22b)
길잔치/노츠연이	427	길잔치	로츠연(路次宴:下42a)
나는비/비선이	287	나는 배	비선(飛船:下18a)
쇠부석다지/화털이	321	부지깁이	화털(火鐵:下13a)
저갓사람이/시인이	273	상인	시인(市人:上14b)
쌈막/고막	335	쌈마	고마(雇馬:下17b)
жат나무/жат나기/빅즈	385	жат나무	빅즈(柏子:下6b)
쇠잔한 바르미/잔풍이	671	잔풍	잔풍(殘風:上2a)

Slovarja(『로한즈뎌』)(S. Peterburg: 1874)을 간행한다.⁵⁾ 이 책은 사전이라기보다는 대역어휘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전편찬사의 한 획을 그은 중요한 문헌이다. 이 사전에는 Medhurst의 *A Comparative Vocabulary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Batavia: 1834)(『朝鮮偉國字彙』)에서 전재한 어휘와⁶⁾, 푸칠로 자신이 수집한 한국어 방언 어휘가 함께 실려 있다. 푸칠로가 직접 조사한 한국어는 전형적인 함북 지역의 방언으로 육진방언과 동북방언의 음운 및 어휘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사전에 실려 있는 한국어는 대체로 육진방언의 음운·어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당시 원동에는 다수의 육진 지역 출신인

5) 小倉進平(1931), 최학근(1977), 고송무(1980), 광충구(1988, 2006), Ross King(1991a)에서 서지, 방언 특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사전이 간행된 같은 해 같은 곳에서 Pjankov 신부의 한국어 철자 교본도 나왔다.(V Polyzu Korejskix shkolvjuzhno-Ussrjskago Kraja, *Korejskaya Azbuka*, (Litograf Korejtsa, obuchavshagosja V Missionerskoj Shkolu, Izdal Dejstvitel'nyj Permskago gubernskago statisticheskago Komissii Korejskij Missioner, Svjashchennik. Vasilij Gr. Pjankov, S-Peterburg. 1874.

6) 푸칠로의 서문 p.vii에는, 사전 편찬 시 한국인 니콜라이 미하일로프 량(梁)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한편, 『朝鮮偉國字彙』에는 「倭語類解」와 「千字文」이 들어 있는데, 푸칠로는 이 책의 한국어를 상당수 『로한즈뎌』에 전재하였다(광충구:1988).

과 소수의 비육진 지역 출신인이 뒤섞여 살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위에서 표로 제시한 자료는 푸칠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국어 어휘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사전 편찬에 반영하였는가를 보여 준다(곽충구: 1988, 2006).

왼쪽의 『로한즈던』에 수록된 한국어와 맨 오른쪽의 『朝鮮偉國字彙』의 어휘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가슴거리/흉디’에서 ‘흉디’는 『倭語類解』에서 전제된 것이고, 함께 제시된 고유어 ‘가슴거리’는 육진방언이다. 그런데 『倭語類解』에서 옮긴 것들은 명사의 경우 모두 ‘이’가 결합되어 있다. 예: 선판즈→선판지, 로즈연→노즈연이 등등. 이렇게 명사에 ‘이’가 결합되는 현상은 육진방언과 동북방언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따라서 사전의 편자는 『倭語類解』所收의 어휘를 원동 거주 한인들에게 제시하고 그 발음이나 뜻을 물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편자가 『倭語類解』의 ‘잔풍’(殘風)을 한인에게 제시하며 그 발음과 뜻을 물었을 때, 한인이 ‘잔풍이’라 발음하고 또 ‘쇠잔한 바르미’라 풀이하여 말한 것을 사전에 옮겨 놓은 것이다. ‘바름’(風)은 ‘브름>바름’의 변화형으로 전형적인 육진방언형이다. 푸칠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어의 뜻, 발음, 문법 정보(활용과 공용) 따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아래 표에서 『倭語類解』所收의 한국어가 아닌 것들은 모두 전형적인 육진방언형이다.⁷⁾ 예: 역, 함불, 눈두베, 머그락지, 겨디, 자기미, 고내, 달비, hing부리⁸⁾, 모로기, 병새리, 굴기, 나조⁹⁾, 큰아비(祖父). 당시 원동 한인들이 대부분 함북 육진 지방 출신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현재의 육진방언형보다 더 고행이다. 예컨대, 예로 든 ‘고내, 달비, 병새리, 굴기’는 현재 ‘고내, 달비, 병새리, 굴기’라 한다.

8) ‘행불’은 ‘감기’의 함북 방언형이다. ‘간질’이라 한 것은 편자의 오류이다. 이 같은 오류가 종종 눈에 띈다.

9) ‘나조’는 육진방언권에 분포하지 않는 함북 방언형이다.

『모한즈던』	쪽수	『倭語類解』
가이/여기	617	ㄱ스변 (邊:上11b)
넉천/함무리/넉무리	555	넉천 (川:上9a)
눈두에/눈두베	555	눈두에 검 (驗:上16b)
기구리/머그라기/머그락지	293	개구리 와 (蛙 :下27a)
겨드랑이/겨덕이/자기미	447	겨드랑이 익 (腋:上17a)
괴/고내/고내이	259	괴 묘 (猫:下23b)
달위/달비	257	달이테 (鬘:上44a)
달비/달뿔	445	"
간지리/헝부리	341	간질 (癩疾:上50b)
모요기/갈기	123	갈기 (鬣:下24a)
화병이/화병새리	37	화병 (花瓶:下13b)
츄쳐니/굴괴/그너	231	츄천 (鞦韆:下20a)
저나기/나조이	51	나조 석 (夕:上5a)
크나빅/크아빅/조뵈	159	조부 (祖父:上12a)

위 예를 보면, 『倭語類解』에서 전제한 것은 앞에, 육진방언형은 대체로 뒤에 배열하였음이 드러난다. 문헌에서 전제한 것과 현지 조사 자료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2.1.2. 카잔에서 간행된 한국어 문헌

원동에 거주하는 한인 자녀의 러시아어 교육이나 정치, 종교, 군사적인 목적으로 노한 대역사전, 회화집, 교과서 등이 간행되었다. 러시아는 자국 영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러시아 공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러시아어를 교육하고 러시아 정교를 포교하였을 터인데 이 일은 러시아정교선교협회(Pravoslavnoe Missionerskoe Obshchestvo)에서 담당하였다. 20세기를 전후한 시기, 당시 동방학의 중심지였던 카잔의 카잔사범학교(Kazanskaja Uchiteljskaja Seminarija)에는 한인 학생들이 있었다.¹⁰⁾ 러시아정교선교협회는 그들 한인 학생들의 도움

10) Y.H. Toibonen(1950: 5-6)에는, G.J. Ramstedt가 이들 한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하여 카잔 사범학교를 방문하였으나 종교가 다른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갔다는 언급이

과 카잔대학의 지원 하에 아래와 같은 한국어 관련 서적을 간행하였다.

Pervonachaljnij Učebnik Russkago Jazyka dlja Korejcev, 1901. [URK]

Azbuka dlja Korejcev, 1902. [ADK]

Russko-Korejskie Razgovory, 1904. [RKR]

Slova i Vyrabnenija k Russko-Korejskim Razgovoram, 1904. [SRK]

Opyt Kratkago Russko-Korejskago Slovarja, 1904. [RKS]

위 문헌은 연해주의 포시에트 인근에 위치한 韓人村(Tizinhe, Adimi, Sidimi, Yanchihe 등) 출신으로서 카잔에 머물고 있던 카잔사범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의 일상적 구어를 전사하여 수록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문헌을 통해서 당시 원동 한인들의 한국어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¹¹⁾ 수록된 한국어는 20세기 초기의 전형적인 함북 육진방언이다. 한인 학생들의 발화음을 키릴문자 또는 그것을 변형시킨 문자로 정밀전사하였는데 분절음은 물론이거니와 악센트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기술 그리고 그에 대한 전사가 정교하여 19세기 역사음성학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프랑스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지은 사전과 문법서¹²⁾를 참고하였으나 그들만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원동 한인들의 고려말을 전사하고 한국어 문법을 간단히 기술해 놓았다. 이러한 일은 카잔이 당시 동방학의 중심지로서 러시아 주변 이민족의 언어를 연구해왔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들 자료는 문어가 아닌 구어 자료라는 점, 제보자

있다.

11) 이들 문헌에 대해서는 곽충구(1986a,b, 1987, 1988, 1991/1994), J.R.P. King(1991a)를 참고할 것.

12) URK, Predislovie, p. 3에 편자들이 참고한 문헌이 소개되어 있다.

Grammaire Coréenne et exercices gradués - par les missionnaires de Core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Iokohama, 1881.(『韓語文典』)

Dictionaire Coréenne-français, Iokohama, 1880.(『韓佛字典』)

Manuel de la langue Coréenne parlée, à l'usage des français, par M. Camille Imbault-Huart, Paris, 1889.

의 선대 거주지와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져 있다는 점, 개별 음성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전사하였다는 점,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는 점, 1세기 전의 육진방언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현재의 고려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카잔 문헌에 수록된 한국어는 두 만강 하류 지역에서 말해지는 육진방언이다. 이 방언은 음운 면에서는 근대 국어 초기의 모습과 흡사하여 ‘ㄷ’ 구개음화가 없고, 어두 위치의 #njV-, #ni- 및 sjV-(V=모음) 음절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휘도 그 형식(form)이나 의미면이 꽤 보수적이다. 그러나 문 종결어미 따위는 매우 독특하다. 알타이 언어학자 G.J. Ramstedt는 바로 이들 문헌에 수록된 한국어 자료를 통해 한국어를 이해하고 또 한국어 역사의 ‘재구’(restoration)와 계통 연구에 그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의 저서¹³⁾에 등장하는 ‘N.K.’(=North Korean)는 바로 위 푸질로의 사전과 위 RKS에서 발췌한 것이다.

아래에 위 카잔에서 간행된 문헌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URK(1901)은 러시아어 어휘와 원동 한인들의 한국어 어휘를 대응시켜 놓은 것으로서 한인 자녀들의 러시아어 학습을 위하여 편찬된 초급 교과서이다.¹⁴⁾ Kazan 사범학교를 수료한 한인 학생들과 재학생들이 이 책의 편집에 관여하였고 그들의 발음을 토대로 한국어가 전사되었다. 즉, 연해주 포시에트 인근 지역 출신인 량(梁) 씨, 김(金) 씨, 덩 씨, 한(韓) 씨가 말하는 한국어 방언 어휘를 키릴문자 및 키릴문자를 가공한 음성기호로 전사하였다. 학생들 개인의 발음과 그 음성 특징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돋보인다. 특히 ‘ㅈ’, 유음 ‘ㄹ’, 어두 ‘ㄴ’의 조음 특징에 대한 기술이 정밀하다. 수록된 한국어는 대체로 육진방언이지만, ㄷ구개음화형이 많고 또 역구개음화의 예도 상당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위

13) “Remarks on Korean Language”(MSFOu 58, 1928), *Studies in Korean Etymology*(I. MSFOu 95, 1949, II. 1953), *A Korean Grammar*(MSFOu 82, 1939),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II. Formenlehre, 1952. I. Lautlehre, 1957)

14) 이 교과서가 간행되기 1년 전에 하바로프스크에서는 아래 교과서가 출판된 바 있다. N. Kuzmin, *Elementarnoe Posobie k Izcheniju Korejskago Jazyka, s grammaticheskimi nraivilami I Frazami dlja Uprazhnenij*, g. Xabarovsk, 1900.

학생들 중에는 중부방언 내지는 비육진 함경 방언 화자들의 후예들도 있었던 듯하다. 육진방언 화자들 속에서 소수의 비육진방언 화자들이 육진방언 화자의 말을 닮아 가려는 노력이 있었던 듯 역구개음화형이 다수 출현한다.

ADK(1902)는 철자교과서로 ‘한국어 편’(이야기들), ‘러시아어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편에는 한국어를 전사한 전사문자를 하나하나 차례로 소개하고, 그 음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고려하면서 한국어 단어를 예로 들었다. 이때 제시된 한국어 단어는 대개 최소대립쌍(minimal pairs)을 이루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단어들이 同綴異音語일 때에는 악센트 표지를 두어 의미 변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시된 한국어 단어들의 실제 쓰임을 보이기 위하여 한국어 문장을 벌여 놓기도 하였다. 91개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한국어는 연해주 짜진헤 출신 K.F. 강씨(姜氏)의 말(육진방언권의 原함북 경흥 방언)을 채록한 것으로 키릴문자를 이용하여 만든 전사문자로 전사되어 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L.N. Tolstoj가 지은 *Novaja Azbuka*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인데, 구술자가 청자에게 구연하는 문투의 구어체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육진방언의 음성, 음운, 형태, 문장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RKR(1904)는 러시아어 한국어 대역 회화서로서 전편, 회화편, 부록(단어와 표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편은 회화편의 도입부로서 ‘서문, 목록, 목록에 대한 주의, 실례, 오류에 관하여’의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본문은 주제별로 10편의 ‘사서리(辭說+이, =會話)’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 면에는 러시아어가 오른쪽 면에는 그 러시아어에 대한 한국어 회화 문장이 전사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연해주 짜진헤 출신 K.F. 강씨(姜氏)의 발화음(육진방언권의 原함북 경흥 방언)을 전사한 것이다.

RKS(1904)의 편찬에는 6인의 카잔사범학교 한국인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사전 안의 한국어는 연해주 포시에트 인근의 안치헤 출신 A.K. Hana(韓)의 발음(육진방언, 原함북 경원 방언)을 채록한 것이다. 연해주의 남우수리에 거주하는 한인 자녀들의 러시아어 학습을 돕기 위하여 편찬되었다. 그리고 표제어는 주로 L.N. Tolstoj가 지은 *Novaja Azbuka*(24판, Moskova, 1900)에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러시아 영내의 이국인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전의 구성은 간행사(사전 편찬의 동기와 경위, 러시아어 표제항목의 선정 과정, 한국어 제보자의 신원, 사전의 이용 범위)와 서문(표제어에 대한 풀이 방식, 본문에서 표제어에 대한 주석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곳을 다시 이끌어 내어 보충 설명을 가한 보유 부분, 한국인들의 성명은 『한불자전』을 참고하였다는 점, 한국어를 전사한 전사문자, 사전의 주석란에서 쓰이는 기호들과 그 지시 의미, 한국어의 기본격(Osnovnoj padezh)과 주격(Imeniteljnij padezh)형에 대한 설명 및 이들의 식별법, 기본격과 주격형의 사전 안에서의 식별 방법, 한국어 형용사의 표시 방법, 존칭의 ‘-k’e’에 대한 설명 및 용례, 한국어에서는 유성음이 어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다만, 어두의 무성자음은 복합어 형성이나 파생, 굴절 등 형태소의 접합 과정에서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만 무성음이 유성음으로 변한다는 사실, 한국어에는 악센트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 악센트는 일정 환경에서 이동하지만 이 사전에서는 주위의 단어들과의 모든 관계를 떠나서 독립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는 점을 명시, 악센트 표시가 없는 경우는 전사문자 상단에 보조부호(diacritic mark)가 있을 때인데 이러한 경우 악센트를 확인하는 방법, 러시아어의 완료체를 한국어로 번역한 방법, 사전 편찬에 참여한 6인의 한국 학생의 이름과 출신지) 및 본문으로 되어 있다.

이 사전은 러시아인이 자국의 영내에 거주하는 소수 이민족인 한인을 러시아의 공민으로 만들고 또 그들에게 러시아정교를 전파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러시아어 교육을 위하여 편찬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전의 편찬 방식도 다른 대역사전과는 다르다. 사전 주석란의 한국어는 키릴 계통의 전사문자만으로 전사되어 있다. 이는 일반 외국어 사전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편찬 방식으로서 이 사전의 편찬 목적이나 사전 이용자의 특수한 여건이 고려된 때문이다.

SRK(1904)는 RKR의 자매편으로서 RKR의 ‘사셔리’에 수록되어 있는 육진방언의 어휘들의 의미를 러시아어 단어로 새김하고 그것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시켜 한국어 문장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간행된 RKR에 대한 일종의 참고서이다. 육진방언의 문법(격조사, 시제 따위)에 대한 설명도

결들이고 있다.

2.1.3. 군사적인 목적으로 간행된 문헌자료

20세기 전후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던 시기이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관심을 증대시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때이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헌들을 간행하였다. 이들 문헌에 역시 육진방언과 동북방언이 수록되어 있다.

Razvedchiku v Koree(Russko-Korejskij Slovarj), S. Peterburg: Izdanie Voenno-Statisticheskago Otdela Glavnago Shtava, 1904.

M. Xlynovski, *Russko-Japonsko-Korejskij Voennyj Perevodchik*, Irkutsk, 1904.

Razvedchiku v Koree(한국에 대한 정탐)은 제목이 그리하듯 한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한국의 남부방언(Iuzhnoe Narechie)과 북부방언(Severnoe Narechie)으로 씌인 한국어 회화문이 실려 있고 권말에 러시아어 한국어 대역어휘집이 부재되어 있다. 책의 편자는 러시아 공사관의書記生으로 파견된 바 있는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한국어 강사 김병옥¹⁵⁾이다. 이 책의

15) 舊韓國外交文書 第17券 俄案 782號(建陽 元年(1896년) 11月 27日)에 의하면, 김병옥은 다음과 같이 함경북도 출신이라 되어 있다. “外部大臣 李完用이 「러시아」 公使 「웨베르」 에게 照會하여 咸鏡北道人 金道一·金升國·金洛鉉·崔文極·金秉玉·崔煥圭·崔相圭 等이 「러시아」 에 流寓하여 「러시아」 國籍을 取得하였던 바 현재 朝鮮 政府에서 該人 等を 需用하러 하니 이들을 「러시아」 國籍에서 削除하여 送還케 하여 줄 것을 請하다.”(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용함). 추측컨대, 김병옥은 함북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여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97년 러시아 공사관 서기생으로 파견되었고 이후 민경옥의 뒤를 이어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한국어 강사를 지냈다. 그가 지은 다음과 같은 교과서가 있다.

Kim, Pën-ok, *Korejskie Teksty*, Sankt-Peterburg, 1898, 62pp.

Kim, Pën-ok, *Posobie k izucheniju korejskogo jazyka, Lekcii, sostavlennija Kim, Pën-okom. prepodovatelem pri Impertorskom S.Peterburskom Universitete, Facultjete vostochnyx jazykov,*

가장 큰 특징은 동북방언의 악센트를 전사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북부방언’이라 한 한국어에서는 함경도 북부 방언의 어휘가 발견된다. 가령, nipta(눙다, 49), sulgyu(수레, 58), namu-pat(눔, 49), əkan-e(사이-에, 49), ətə-poo(찾-소, 50), muthu(통나무, 43) 따위와 같은 함북방언과 tshwan(<船, 49), tadupɛtshɛ(<大頭白窠?, 양배추, 47), thuŋdza(<桶子, 물통, 43), thandza(<毯子, 담요, 44) 따위의 한어(漢語) 차용어는 함경도의 북부 지역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들이므로 이 책의 편자는 함경도 북부 지역 출신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밀하게 전사되어 있는 한국어의 악센트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격조사를 비롯하여 함경도 방언으로 보기 어려운 예도 간혹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 책의 편자는 함경도 방언과 중부방언을 구사할 수 있는 이중 방언화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이 책의 한국어는 김병옥 자신의 방언을 토대로 엮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특징은 한자어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사, 문화에 대한 신조어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 점이 고유한 육진방언 어휘를 보여주고 있는 Kazan 자료와 차이나는 점이다. 또 Kazan 자료는 발화음을 정밀전사한 것인 데 반해, 이 책은 약 식전사(broad transcription)한 것이라는 차이점도 지적할 수 있다.

M. Xlynovski의 『러시아-일본-한국어 군사 통역』에 실려 있는 한국어의 방언적 성격은 김병옥의 *Razvedbiku v Koree*의 그것과 흡사하다. 상당량의 한국어 회화 구문과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한국어는 이르쿠츠크 보병사관학교의 한인 생도가 적어 넣은 것이라 하였다. 중부방언과 동북방언의 요소가 함께 보이며 *Razvedbiku v Koree*처럼 동북방언의 악센트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이 책은 목차(i-ii), 서문(i-iv), 발음에 대한 일러두기(일본어, 한국어, 1-3면), 문법 지식(4-14면), 회화 구문(15-152면), 노-일-한 사전(153-224면), 일-노 사전(225-259면), 한-노 사전(260-298면)으로 되어 있는 제법 부피가 큰 책자이다.

2.1.4.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행된 문헌¹⁶⁾

Tajshin, *Russko-Korejskij Slovarj*, 1898, Xabarovsk.

Matveev, “Kratkij Russko-Korejskij Slovarj”, *Spravocnaja Kniga g. Vladivostoka*, 1900, Vladivostok.¹⁷⁾

Tajshin의 *Russko-Korejskij Slovarj*도 역시 사전이라기보다는 對譯語彙集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Tajshin의 사전은 연해주 총독부 참모부에서 인쇄되었다. 이 사전의 어휘는 반수 이상이 푸칠로의 『로한즈뎌』와 A.V. Starchevskij(1890)에서 전제한 것이나 그 자신이 새롭게 추가한 것도 있다. 역시 상당수의 동북방언과 육진방언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를 전사한 키릴문자 전사체계는 매우 조잡하다. 한국어의 유기음과 된소리를 구별하지 않고 전사한 것이 그 한 예이다.

Matveev의 ‘노한소사전’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안내 책자 속에 들어 있다. 이 책자는 러시아 주변국인 한국, 일본,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려는 의도로 3국의 달력, 도량형, 화폐를 도표로 보이고 있다. 부록으로 노-한, 노-일, 노-중 대역어휘집과 간단한 회화 구문이 붙어 있다. 노-한 대역어휘집의 한국어는 육진방언이다. 1-17면까지 609개의 노-한 대역 어휘가 실려 있고, 17면에는 한국어 수사(1-22, 30, 40 … 100), 17-20면에는 간단한 회화 구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시간(時), 화폐 단위(달러-원, 루블-냥, 코페िका-글짜)가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육진방언 어휘를 수록하고 있지만, 제보자의 신원이나 출신지가 밝혀져 있지 않고 또 한국어 모음에 대한 키릴문자 전사가 명확하지 않은 곳이

16) 아래 A.V. Starchevskij의 저작물에는 한국어 회화문과 어휘가 수록되어 있지만 동북방언과 육진방언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J.R.P. King(1991: 168-192)를 참고할 것.

A.V. Starchevskij, *Nashi Sosedj. spravocnaja Knizhka. Pogranicnomyj Perevodchik. (Po nashej juzhnoj, azijatskoj granitse)*. S.Peterburg, Kolokoljnaja, N.14. 1890.

A.V. Starchevskij, *Russkij Morskoj Perevodchik vo vsej portax Azij na 25 jazykax. Vostochnye Jazyki*. S. Peterburk, 1892.

17) 이 잡지의 한국어 전사, 음성, 음운, 어법, 어휘에 대해서는 J.R.P. King(1988)를 참고.

있다. 어두 위치의 ‘ㄴ’을 [d]로 전사하였고 혹은 ‘ㄹ’을 [b]로 전사하였는데, [ᵀn], [ᵀm]을 그리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¹⁸⁾

한편, 19세기에는 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어를 소개한 책자가 간행되었다. 제정 러시아 주변의 여러 민족어의 언어를 소개하는 책자 속에 한국어가 들어 있다.¹⁹⁾

2.1.5. 고유명사 자료

2.1.5.1. 지명(地名)

원동 한인들의 거주 지역 이름은 러시아어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푸칠로(1874, 서문)에 초기 한인들의 거주 지명이 나온다. 대체로 러시아 인명, 러시아의 고유 지명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예컨대, 포시에트(제정 러시아 시종무관), 하싼(군인), 푸칠로와 신부 빼얀코프를 기리기 위하여 붙여진 푸칠로프까, 빼얀코바 따위가 그것이다.

Ross King(1991a: 31-39)에는 A. Kirillov(1894)에서 인용한 고려인들의

18) 이 동시조음에 대해서는 이병근(1980)을 참고. 김주원(2007)은 중앙아시아 고려말에 이 조음 특징이 있음을 밝히고 실험음성학적 방법으로 이 음성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국인들의 저작물 속에는 한국어 어두 위치의 ‘ㄴ’을 [d]로 전사한 예가 많다. 이에 대한 아주 미세한 관찰과 기술은 *Pervonachaljnij Uchebnik Russkago Jazyka dlja Korejsev*, (Kazan: 1901), Predislovie p. 17에서 볼 수 있다. “러시아어에서는 보통으로 발음하지만, 한국인들은 ㄱ([d])에 가깝게 발음하는 음성 H([n])^{*}각주, niybi(누이)는 거의 d̄iybi처럼 발음되고, n̄(너)는 de에 가깝게 발음된다) 외에, 한국인들은 H([n])과 같은 성질의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리는 H([ŋ])로 전사된다. …”(필자 譯). Marveev(1900)에는 한국어 단어의 어두 위치 ‘ㄴ’이 [d]로 전사되어 있다. 또 한국어를 전사한 일본 측 문헌에서도 발견된다. 푸칠로의 『로한견면』, G.J. Ramstedt(1939)의 *A Korean Grammar*, p.12에서도 이러한 음성 특징에 대한 언급이 있다. “... local dialects with an initial sound between n, l and d, probably some kind of nasalised l with the tip of the tongue in the position of d. The word for 'four', elsewhere n̄e, was pronounced as "dui, "lui or duin, l̄uin. the person I met seemed not to b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l, n, d and r at the beginning of a word. …”

19) 이에 대해서는 JRP King(1991: 168-194)를 참고.

거주 지명과 그 개척 시기, 인구 수 등이 지도와 함께 상세히 나와 있다. 최초의 이주지로 알려진 짜진헤(Tizinhe)는 강의 이름인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명 鷄心河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이주 한인들의 집거지 중의 하나인 Yanchihe도 중국명 煙秋河에서 유래한 것이다. 1871년에 재이주된 ‘사말리’는 아무르강의 지류인 Samara江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²⁰⁾ 대체로 이주촌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강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초기 이주지 Sidimi, Adimi, Fataši 따위는 그 어원을 알기 어렵다.

한편, N.S. Pak(1995: 26-29)은 강제 이주 전 한인들이 살던 원동의 거주 지명을 연구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70여 항에 이르는 고유 지명을 제시하였다. 현재 박 벨리 교수와 김 류드밀라 선생이 이들 지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위 N.S. Pak 교수 논문에 실려 있는 지명 중에서 비교적 어원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몇 예를 골라 보이면 아래와 같다.²¹⁾

지명의 구조를 ‘D+N₁+(…N_n)+S’라 할 때, N은 명사, D는 N에 부가된 수식 요소, S는 접미적 요소를 가리킨다.

20) 사말리 출신인 한글라피라 씨(여, 85세)는 ‘사말리’라는 지명이 아무르강의 한 지류인 ‘사말라’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필자에게 말한 바 있다. Ross King(2001a)는 Blagoslovennoe에 대한 각종의 기록물을 통해 이 마을의 역사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편, 뒤바보의 俄領實記에는 1881년에 ‘沙滿理(Blagoslovennoe)’로 이주하였다고 하였다. 이상근(1996)에는, “1870년 동부시베리아 총독 시벨니코프는 한인 103가족(431명의 성인 남녀)를 블라고베시첸스크 인근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이들은 러시아 농업 이주민들에게 시행되었던 것과 같이 가구당 100데샤티나의 토지를 받았다. 1872년 사마르키 강가의 블라고슬로벤노예(Blagoslovennoe, 신의 은총을 받는)의 한인촌이 건설되었는데 한인들이 러시아 영내로 들어가서 형성하였던 촌락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21) 키릴문자로 전사된 것을 한글자모로 바꾸어 전사한다. 키릴문자 전사가 불투명한 것은 필자가 약간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다.

벨리 박 교수(카자흐스탄 국제정치세계언어대), 반병률 교수(외국어대), 벨라 박 선생(러시아)이 각각 800여에 달하는 원동의 한인 거주 지역 지명을 지도와 함께 수집하였다 한다. 곧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 D

- (1) 위치 : 상/중/하. 예: 상벌이/중벌이/하벌이. 상소(上沼)/중소(中沼)/하소(下沼).
- (2) 방향 : 동/서/남/북(+작(=쪽)). 예: 동작골, 서작골, 남녀이(南嶺), 북녀이(北嶺).
- (3) 크기, 형상, 빛깔, 원근 : 큰산이, 뽕족산이, 붉은냥차이(붉+은+냥차+이), 붉은 낭떠러지, 먼고개(멀+은+고개)²²⁾
- (4) 자연 : 솔박골(솔+밭+골), 松田谷), 덕골(阜谷), 박달골(박달(檀)골?)
- (5) 식물 : 감지막골(감지(薯)+막+골), 모밀박골이(모밀+밭+골+이), 메밀밭골
- (6) 기온 : 남석골이(남석(陽地)+골)
- (7) 성씨(姓氏) : 박석골이(박(朴)+석(石)+골+이)²³⁾

2. Nn

- (1) 지형지세를 나타내는 말
 - 1) 골(谷) : 솔박골, 덕골, 박달골(박달골?), 감지막골, 남석골이, 박석골이, 모밀박골이.
 - 2) 벌(野), 벨(벌) : 성벨이(상+벌), 중벨이(중+벌), 하벨이(하+벌).
 - 3) 고개(峴) : 먼고개, 박석고개.
 - 4) 영(嶺) : 북녀이(北嶺), 남녀이(南嶺), 엔치네(=프라스끼노).
 - 5) 산(山) : 큰산이, 뽕족산이.
 - 6) 소(沼澤地) : 상소(上沼), 중소(中沼), 하소(下沼).
 - 7) 배기 : 돌배기(돌+박+이)

22) *Russko-Korejskie Razgovory*의 pp. 2-3에도 이 지명이 나온다. 그리고 p. 64에는 연해주 남우수리 관구 포시에트 면에 위치한 농촌이라고 하였다.

23) 중국의 훈춘시에 거주하는 朴楠星씨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다.

(2) 보통명사

- 1) N : 쥬래(목청, 기관지), 어자이(漁場), 감지(<감즈+이, 감자)
- 2) N+N···(이) : 고거세(고개세<고개+스+이²⁴⁾), 남지따이(南地+따+이), 박석골이, 메밀박골이, 감지막이.
- (3) 한어(漢語) : 찌진헤(鷄心河+이)²⁵⁾, 메(모)케우, 한첸케우, 옌치네(煙秋+이+嶺)

3. S

- 1) 재(子, 중국식 지명) : N+子+이. 엔다우제, 가제, 디제.
- 2) 커우(口, 중국식 지명) : N+口+이, 모커우(매커우?, =포시에트), 한첸커우.

2.1.5.2. 인명(人名)

Azbuka dlja Korejcev(1902)의 Predislovie(=서문, xv-xvi)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로 나누어 한인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인명은 본문의 ‘Razskazy(=이야기)’ 속에 등장하는데, 어떤 인명에는 그 인명이 가진 뜻을 풀이해 놓았다. 그리고 개 이름도 덧붙여 놓았다. 키릴문자로 전사되어 있는 것을 필자가 음성기호로 바꾸어 재전사하고 또 괄호 속에 한글자모로 다시 전사해 두었다.²⁶⁾ (‘ㄷ’는 필자가 그 뜻을 추정해 본 것이다.)

24) 육진방언권에서 ‘사이’(間)를 ‘세’라 한다. ‘스시>스이>시>세’의 변화이다. 육진방언에는 치조음 뒤에서 ‘으>어’의 변화 예를 이따금 볼 수 있다. 키릴문자로 전사된 ‘고거’는 ‘고개’의 오식으로 보인다.

25) ‘각주 4’를 참고할 것.

26) 인명을 형태소 분석하고 정밀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이픈(‘-’)을 두기도 하고 또 인명이 가진 뜻을 풀이하기도 하였는데, 인명의 어원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과 뜻풀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문의 언급에 의하면, 이렇게 서문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밝힌 것은, 이 책의 ‘이야기’가 본디 L.N. Tolstoj가 지은 *Novaja Azbuka*를 육진방언으로 번역한 것인데 번역할 때 러시아 인명을 한인들의 인명으로 대체하였음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1) 남자아이 이름

Šəŋnyūri(성누리) cf. 석(石)+유리

Šəŋsemi(성샘이)

Kunp^hiri(군필이)

Tset-tori(젯돌이) 재(灰) 속의 돌.

Porŋemi(봉냄이) 복(福)이 있는 남자아이(『복남(福男)』+이).

Kuin-dori(구인돌이) 귀여운 돌(石).

Manšegi(만섹이) cf. 만석(萬石).

Porŋogi(봉녹이)

Kuy-nemi(귀냄이) 사랑스런 아이.

Iŋ-nogi(잉녹이)

Maŋ Kimi(만금이) 일만(一萬) 황금(黃金)[만금(萬金)+이].

Wəŋgiri(원길이)

T^həŋgimi(천금이) 일천(一千) 황금(黃金)[천금(千金)+이].

Myəŋemi(며냄이)

Ki^hmani(그만이)

Tyaŋsoni(당손이) 장손(長孫).

2) 여자아이 이름

Kobuñe(곱운네) 고운(예쁜) 소녀(『[곱+은]+녀』+이)

Sep pyeri(셋별이) 새벽의 밝은 별. 셋별.

Šuŋgumi(순금이) šun hange-온순한(온순한 것이) [순금(順金)+이]

3) 개 이름

Kamag^hi(가마귀) vorona(가마귀, 멍청이, 바보)

Nurəŋd^hi(누렁뒤) nurən-누런, d^hi-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kaziŋd^hi-게으른 놈. cf. ‘d^hi’는 ‘-둥이’, ‘kaziŋ’은 ‘게으른’의 뜻.

Ross King(2001a: 140-142)은 사말리(Blagoslovennoe) 마을의 역사를 밝힌 논문인데 이 논문에도 한인들의 인명이 나온다. 위 *Azbuka dlja Korejisev*처럼 개별 인명이 정밀전사되어 있지 않아 이름 자의 원음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시 한인들의 인명을 좀 더 광범위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름은 고유어계와 한자어계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로 고유어 계가 많은 편이다. 고유어계 중에는 ‘놈이’, ‘바위’(巖), ‘돌이’(石), ‘두이’(<둥이)가 붙은 이름이 많고 그 밖에 ‘탈’(鐵)을 넣어 지은 이름도 있는데 남자의 이름이다. 여자의 이름에는 ‘갓난이’ 등이 보인다.

바위: 바위, 돌바위, 김바위, 전바위, 오바위, 리바위, 돌바위

돌이: 금이돌이, 원근돌이(oinggyndori), 만선돌이(mansiandori), 어린돌이, 병자돌이(penzatori)

두이: 뉴월두이, 방량두이panniatui.

그밖에 출생 순서를 따서 지은 ‘둘째’, ‘셋째’, ‘넷째’ 등도 있다.

한자어 계는, 여자의 경우 ‘박씨, 디씨(<니씨, 李氏), 당씨(張氏), 도씨(趙氏)’처럼 이름은 없고 성씨만 있는 예도 있고, 남자의 이름에서는 항렬자를 넣어서 지은 듯한 이름도 여럿 보이나 앞 고유어계보다는 수적으로 적은 편이다.

2.2. 중앙아시아의 고려말 자료와 연구

2.2.1. 중앙아시아 고려말 자료

구소련 체제가 해체되기 전후에는 단편적인 어휘 자료가 소개되었다. Ross King 교수는 구소련의 붕괴 전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그곳 한인들의 고려말을 조사하여 Ross King(1987)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뒤 소수의 내외국인 학자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자료를 조사하였으나 연구 논문만 있을 뿐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조사된 자료집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²⁷⁾ Ross King 교수

27) 고송무(1987) 등에도 어휘 자료가 일부 소개되어 있다. 그 외 킹, 러스·연재훈(1992), 곽충구(2000b), 이기갑·김주원 외(2000)에도 약간의 어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와 N.S. Pak 교수가 10여 년 이상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고려말 사전’을 편찬 중에 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2007년도 해외 지역 한국인의 지역어 조사 연구” 계획에 따라 곽충구(서강대)가 구술발화, 어휘, 음운, 문법 등을 아우른 2,000 개 이상의 조사 항목을 가지고 현지 조사를 마쳤는데 2007년 12월에 보고서 형태로 자료집이 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동호, 권재일, 김주원, 이기갑 교수는 2004~2007년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조사한 구술발화 자료를 한글 자모로 전사하여 책으로 펴낼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 구술발화집이 간행되면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고려말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인들의 원동에서의 생활 문화사 전반과 강제 이주 과정 및 중앙아시아에서의 정착 과정을 잘 보여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복규 교수(서경대)는 카자흐스탄에서 조사한 설화를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 설화’라는 책자로 현재 출판 중에 있다.

2.2.2. 중앙아시아 고려말 연구

외국인으로서 처음 이곳을 방문한 Ross King 교수에 의하여 자료가 조사되었고 그 방언적 특징이 보고되었다(King: 1987). 그 뒤 역시 N.S. Pak(1991)에서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방언 특징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킹, 러쓰·연재훈(1992)가 음성 특징, 음운체계, 형태소 내부에서의 주요 음운현상 및 몇몇 문법형태소의 의미를 밝혔다. 이기갑·김주원 외(2000)에서는 같은 분야를 좀더 정밀하게 조사 연구하고 문법 특징과 문법형태소의 기능 따위도 밝혔다. 이들이 연구한 고려말은 주로 육진방언이다. 육진방언이 한국어 방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듯하다. 때문에 흔히 ‘길주·명천 방언’으로 일컬어지는 비육진방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 연구가 없었다. 고려말에 대한 조사 연구가 대상과 방법에서 한 쪽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과 연구 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려말의 언어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밝힌 연구 외에 특정 분야를 좀더 미시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도 몇 편 발표되었다. 현지 학자인 N.S. Pak 교수는 역시 카자흐스탄 고려말의 변종과 그 언어적 특징, 역사, 원동의 지명 등을 연구하고 (Pak: 1995) 이어 육진방언의 친족명칭(Pak: 1996), 육진방언의 분화 과정(Pak:

1997a), koiné로서의 발달(Pak: 1997a) 등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이러한 N.S. Pak 교수의 고려말에 대한 연구는 N.S. Pak(2004)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라리사(2002)는 카자흐스탄 한인 집거 지역 중의 하나인 우수토베에서 고려말을 조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휘·문법 영역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육진방언에 집착하지 않고 koiné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인들의 실제 고려말을 조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극소수의 노년층이 말하는 고려말을 제외하면 대체로 50대 이상으로부터 70대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고려말은 함북의 육진방언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함북의 지역적 변종들의 방언 특징이 가미된 koiné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흔히 고려말을 연구하면서 ‘육진방언’이니 ‘길주·명천 방언’이라는 술어를 사용하는데, 연구자들이 이른바 ‘길주·명천 방언’이라 한 것은 바로 이 koiné적 성격을 가진 고려말을 지칭한 것이다. 물론 原길주·명천 방언을 구사하는 제보자도 있다. Ross King(1992: 202)에서는 koin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Tashkent koiné”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고, J.R.P. King(2003)에서는 구두 발표를 통해, 고려말이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을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N.S. Pak.(2001, 2004)에서도 그러한 언급이 있다. 곽충구(2004)는 고려말이 koiné로 발전하게 된 역사·사회적 배경과 그 진행 과정을 밝히고자 한 논문이다. 곽충구(2004)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아시아로의 이주 후 이질적인 방언 화자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됨으로써 고려말은 본격적으로 수평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음운 특징은 비육진방언의 그것으로 수평화되는데, 비육진방언 화자들이 수적으로 압도적이었고 비육진방언이 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말에는 ‘아디바이’²⁸⁾와 같은 역구개음화형이 잔존해 있는데 이 역구개음화형이 지금까지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수적으로 우세한 육진방언

28)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이가 어린 남동생, 어머니 여동생의 남편 등을 가리키는 친족명칭. 필자의 조사, 나라리사(2002), 고려일보가 조사한 친족명칭 자료에도 보인다.

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리던 시기에는 비육진방언 화자들이 육진방언을 닮아가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 비육진방언 화자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디바이’이다. 그후 우월적 지위가 반전되었지만 ‘아디바이’는 이미 일정한 세력을 형성한 터라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고려말이 육진방언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으>오’ 원순모음화나 ‘따르다>따르다, 너자>너자’ 따위와 같이 치음 뒤에서 활음이 탈락한 예²⁹⁾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그 분포 범위가 협소한 방언형들이 수평화 과정에서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2) 어휘는 육진방언과 비육진방언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고려말의 어휘가 어떠한지 말하기 어려운데, 기초 어휘에 속하는 친족명칭³⁰⁾은 대체로 육진방언의 그것과 일치하되 그 음운 특징은 함북 남부 방언과 같다.

	육진	길주·명천	고려말
조부	아바니, 큰(클)아바니	큰(클)아배	큰(클)아바이, 아바이
백부/외숙 ³¹⁾	만(몰)아바니	만아배	만아바이
고모/이모 ³²⁾ /숙모	아재	아지미	아재, 아지미
숙부/이모부/외숙 ³³⁾	아즈바니	아재비	아즈바이, 아지바이, 아디바이

현재의 고려말 친족어휘는 함경도 방언에서 볼 수 있는 체계—부계친과 모계친을 구분하지 않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 친족명칭은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휘 자체는 육진방언형이나 그 어휘가 가진 음운 특징은 비육진방언(육진방언권을 제외한 함북방언)의 특징이다. 즉, 육진방언

29) 이러한 음운현상은 육진방언권에서도 서부의 회령, 온성, 종성, 경원 일부 지역어에서 볼 수 있다. ‘으>오’ 원순모음화는 회령, 온성, 종성 지역어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경흥 지역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뽕다>뽕다’는 함북 전지역에 분포한다. ‘으>오’ 변화가 어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0) 함북방언의 친족명칭에 대해서는 곽충구(1993)을 참고.

31) 어머니의 오빠

32) 아버지의 여동생/어머니의 여동생.

33) 아버지의 남동생/어머니 여동생의 남편/어머니 남동생.

형 ‘아즈바니’와 ‘말아바니’가 각각 ‘아즈바이, 아디바이, 아지바이’와 ‘말아바이’로 나타난다. ‘ㅣ’ 모음 앞에서 /ㄴ/이 탈락하는 비육진방언의 음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육진방언이 비육진방언의 영향을 받아 고려말이 된 것이다. ‘아디바이’는 과도교정형으로 육진방언과 비육진방언의 접촉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 고려말에 정착한 예이다. 고려말 속에는 육진방언과 함북 남부 방언에서 볼 수 있는 친족명칭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예: 아지미, 아재), 이는 육진방언과 비육진방언권의 방언형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된다.

3) 고려말에서는 육진방언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종결어미 ‘-읍꾸마/-습꾸마’, ‘-음둥/-슴둥’이 널리 쓰인다. 이 어미들은 비육진 지역인 무산·부령·경성 등에서도 쓰이나 길주·명천에서는 쓰이지 않는다.³⁴⁾ 함북 방언의 길주·명천에서는 ‘-음메다/-슴메다’, ‘-음지비/-습지비’가 주로 쓰인다. 그러면 어찌하여 육진방언의 ‘-읍꾸마/-습꾸마’, ‘-음둥/-슴둥’이 쓰이게 된 것일까? 이는 현재의 고려말이 기본적으로는 육진방언에 그 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극소수의 노년층은 대체로 모방언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래 세대는 육진방언의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비육진방언의 음운 특징이 가

34) 小倉進平(1927)에서는, “경성 이북은 ‘-꾸마’를 쓰며 ‘-ㅁ메’를 쓰는 일이 없고, 명천·길주 이남은 ‘-ㅁ메’를 쓰며 ‘-꾸마’를 쓰는 일이 없다. 경성(鏡城)과 명천(明川)과의 사이에 분명히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다.”라고 하여, ‘-꾸마’의 분포 지역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함경도 방언을 조사·연구한 정용호(1988), 황대화(1986)에서도 오구라와 비슷한 보고를 하고 있다. 황대화(1986:112)는 “《-꾸마》와 《-꼬마》는 방언 지역에 따라 쓰이는 폭이 다르다. 육진방언에서는 그것들이 전지역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함북방언에서는 부령과 경성을 비롯한 부분적인 지역에서만 쓰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정용호(1988:230)은, “이 방언에서 높임의 말차림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던 《-ㅁ메다》, 《-ㅁ미다》, 《-ㅁ네다》는 오늘 그 쓰이는 범위가 점차 좁아지면서 함경남도 흥원군, 북청군, 리원군, 덕성군을 중심으로 하고 함경북도에서는 김책시, 길주군, 명천군 일대에서 주로 쓰이게 되었으며 …”라고 하여 학성·길주·명천 등 함북 남부 지역에서는 ‘-ㅁ메다’가 쓰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필자는, 고려말에 대한 필자의 수차례의 현지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보고된 고려말 조사 자료에서 ‘-음메/-슴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미된 고려말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과제

3.1. 고려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0세 중반 이상의 고령층, 특히 원동에서 출생하고 그 지역에서 모어를 습득한 사람들은 대체로 모어를 구사할 수 있다. 강제 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대체로 코이네적인 고려말을 사용한다. 주거 형태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50대 이하는 고려말을 구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출생지, 연령에 따른 고려말의 차이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음운, 문법, 어휘의 영역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조사·연구는 고어의 잔재를 많이 지니고 있는 육진방언의 음운 특징을 조사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길주나 명천 등 함경북도 남부 방언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나 중국의 길주 명천 방언은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原길주·명천 방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는 망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조사 연구는 음운 쪽에 너무 치중하였으므로 어휘나 문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동북방언이나 국어 지리방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고려말의 역사, 이중언어사용, 언어접촉, 사회언어학적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금세기 초에 소멸될 운명에 처한 고려말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조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고려말은 언어의 사멸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의 고려말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기술하기 위해서는 사회언어학 또는 사회역사언어학(socio-historical linguistics)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언어학적 관심사들, 즉 사회적 변인에 따른 고려말 내부의 차이,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나 언어접촉에 의한 차용이나 간섭(interference) 현상 등이 정밀하

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3.2. 국어사와 고려말

3.2.1. 치조음과 구개음으로 조음되는 ‘ㄷ’

‘ㄷ’의 조음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찰되고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ㄷ’의 음가를 구명하는 문제나 이와 관련된 구개음화 규칙은 국어음운사의 주요 논쟁거리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체계와 규칙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증시하는 이론의 문제를 점검한다거나 언어 변화의 어떤 모형을 기술해 볼 수도 있다.³⁵⁾ 필자의 조사에서, 육진방언 화자가 구사하는 고려말 어휘는 대부분 구개음화를 겪지 않았다. 그런데 구개음화를 겪은 예, 예컨대 ‘똥다’의 개신형은 ‘쫘다’가 아닌 ‘쫘다’로 조음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말에 나타나는 구개음화 현상이 순전히 언어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방언간의 접촉에 의한 것인지 또는 표준어 차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ㄷ’의 발음에 대하여 중국의 육진방언 화자 중의 일부는 ‘자’와 ‘ㅈ’를 분명하게 발음하고 또 자신들이 그것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치조음 [ts]과 [tʃ]를 구분하여 전자는 ‘한 줄(=또는 왜줄)’, 후자는 ‘두 줄’이라 표현하기도 한다(곽충구 2001, 2005). 2007년 8월의 중앙아시아 조사에서도 제보자는 [ts]과 [tʃ]를 정확하게 구별하였다. 한글자모를 전혀 모르는 제보자는 [ts]는 러시아 자모 ц, [tʃ]는 ц로 구분하였다. 또 ‘디’를 [tʃ]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치조 위치에서의 파찰음인데 [tʃ]가 구개성이 약한 [tʃ]를 동반하는 소리이다. 제보자는 이 ‘디>지’의 ‘지’를 러시아 자모로 적으라고 하니 ‘цц’로 적었다.³⁶⁾

35) 중국의 육진방언을 대상으로 그러한 연구를 수행한 소신애(2005)를 참고.

36) *Pervonachaljnij Učebnik Russkago Jazyka dlja Korejcev*(1901)의 서문 p. 10에 이 음성에 대한 관찰과 기술이 있다. “... 문자 т, ɸ, ɸ는 구개화된 ʃ(=t), т(=t), ɸ(=d)를 지시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는데, 이들 문자 뒤에 아주 약한 마찰적 기생음이 있다(т, ɸ는 [ʃ], ɸ는 [ɸ]). 이 기생음은 т, ɸ, ɸ와 한 소리로 융합한다. 그렇지만 ɸ[ʃ], ɸ[ʃ], ɸ[ɸ] 경구개

3.2.2. 탄설음으로 조음되는 ‘ㄹ’

곽충구(1986, 1988:148-149, 1991/1994:60-65)에서는 푸칠로의 『로한즈던』 및 카잔 문헌에서 한국어 유음이 휴지나 자음 앞에서도 [r]로 전사되었음을 밝혔다.³⁷⁾ 정밀전사를 피했던 카잔 자료의 편찬자들은 북부 방언의 유음을 [r]로 전사하고 유음의 중복은 [ll]로 전사하였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G.J. Ramstedt(1939), Xolodovich(1954)³⁸⁾에서 이것이 고대 한국어의 잔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믿고 이는 한국어의 역사를 재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중앙아시아의 고려말 육진방언을 조사한 J.R.P. King(1987, 1988:295-6), 킹, 러쓰·연재훈(1992), 곽충구(2000), 이기갑·김주원 외(2000)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육진방언 화자들이 음절말 위치의 ‘ㄹ’을 [r] 또는 [r]로 발음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필자의 2007년도 고려말 조사에서는 [r]와 [r]로 조음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r] 발음은 러시아어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두만강 유역의 육진방언에서, 휴지 및 자음 앞 ‘ㄹ’이 때로 彈舌音(=[r])로 조음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곽충구: 1998, 2005). 그러나 이 음성의 실현은 수의적이다. 예: [pɔrɾa'apɔrbára](밥다). 예처럼 세 자음의 연쇄에서 C_i이 유음이면 그 유음은 [r]로 조음된다. 현재 중국 육진방언권의 유음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필수적으로 [r]로 조음되고 음절말 위치에서는 [r] 또는 [ll]로 조음된다. 따라서 휴지나 자음 앞의 ‘ㄹ’을 [r]로 조음하는 것은 단순히 러시아어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어음운사의 영역에서 논의할

계열에서 볼 있는 것처럼 기생음이 선행하는 치음을 가로막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 예: 장물이(국, 羹), 죽이(죽, 粥), 장갑이(장갑), 저구리(저고리), 목견이(목젓), 주래(기관지), 정개(<명개, 정강이), 차라한다(자랑한다)(필자 譯)

37) 『로한즈던』에서는 한국어 유음을 전사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한편, *Pervonachalnjyj Učebnik Russkago Jazyka dlja Korejcev*(1901)의 서문 pp. 18-19에서는 제보자 Ten씨의 발화음에서만 나타나는 유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38) A.A. Xolodovich(1954:9-10), ‘Fonetika severnyx dialektov’이라 하여 한국의 북부방언에 이와 같은 조음 특징이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어 북부방언은 고대 한국어의 음성체계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필자 譯)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곽충구(200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마도 국어 유음이 국어사의 어느 단계에서는 [r] 또는 [r]로 발음되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육진방언권의 이 유음은 육진방언만의 독특한 음성 특징인가 아니면 과거 국어 유음의 잔재인가. 이 육진방언의 다른 음성 또는 음운 특징은 모두 국어음운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음도 과거의 잔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어 음절말 자음의 미파화와 관련될 듯하다. 국어의 자음들이 선행 시기에 외파적 단계에서 내파적 단계로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이기문: 1972), 음절말 자음들의 미파화는 유음을 끝으로 종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국어 음절말 자음들의 미파화는 육진방언권을 끝으로 종료되고 있는데, 육진방언권의 미파화는 19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중부방언의 음절말 위치의 ‘ㄹ’은 약간 권설음으로 조음되는데 [r]이 그 조음 위치에서 혀끝 떨림이 없어지면 곧 [l]과 가까운 소리가 된다. 유음의 미파화는 [r]이 [l]로 실현된 것이다.

3.3. (역사)사회언어학과 고려말

이 방언은 이주민에 의한 방언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따라서 immigrant koiné로서의 성격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N.S. Pak(2001, 2004), 곽충구(2004) 등에서 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연구된 바 있으나 좀더 광범위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집단 거주 지역, 산거 지역, 연령, 교육, 직업 등 사회적 변인을 고려한 사회언어학적 조사 연구가 수행되면 사회적 변인에 따른 고려말의 분화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변인들이 발견될 것이고 또 변화에 영향을 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고려말의 내적 발달이나 변화의 과정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 접촉에 의한 변화 즉, 이질적인 러시아어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 언어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접촉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를테면 피진이나 크레올 따위와 같은 튀기어는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어와의 접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음운, 어휘, 문법 상의 여러 현상들도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음운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조음상의 문제, 문화적 차이에서 빚어지는 어휘 의미의 변화 또는 어휘의 차용, 문법 범주의 변화 등이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4. 사멸해 가는 언어로서의 고려말

이중언어사용자인 고려말 화자의 모어 상실 과정도 흥미로운 연구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직업군 또는 주거 형태 따위를 고려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반적인 원리 따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물을 인지하고 명명하면서 어휘를 통해 세계를 확장해 가는 일반적인 언어 발달 과정과, 습득한 모어를 점차 상실하면서 소멸의 길을 걷는 과정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는 문제도 흥미로운 과제가 된다. 음운체계, 어휘, 굴절형태론, 통사, 의미 등을 통하여 어떤 요소들이 마지막까지 잔존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언어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고려말을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50대 여성 제보자를 대상으로 기초어휘 300여 개를 가지고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³⁹⁾

음운에서는, ‘평음-경음-유기음’의 대립 체계에서 어두 경음이 평음으로 실현되어 상관체계가 축소되고, 또 러시아어에 없는 전설 저모음 /ɨ/가 /ya/로 분열되는 현상이 있다. 예: 가사(<가새, 가위), 샨아기(<새애기, 처녀), 하깁소(<해깁소, 가법소), 까까진계(<깨까잔 계, 깨끗한 것) 이 같은 현상은 러시아어 음운체계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어휘에서는, 추상명사보다는 구체명사의 잔존율이 높고, 구체명사에서는 친족어(직계존비속)>수사(1-10까지)>인체어(인체의 외부 명칭)>질병>자연>생활 도구 순으로 잔존율이 높았다.⁴⁰⁾ 기초어휘 중에서 친족어와 수사의 잔존율이 가장

39) 2007년 8월 카자흐스탄 알마아티에서 조사하였다. 제보자는 문 일리나(52세, 여) 씨이다.

높은 점이 흥미롭다. 4계절 명에서는 ‘동삼’(=겨울)을, 색채어에서는 오색 중에서 강도가 높은 것들(싹허연계, 누우런계, 시퍼런계, 재빨간계)만이, 수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스물’, ‘백’, ‘천’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상위어와 하위어에서는 상위어만 인지하고 그에 딸린 하위어는 모두 상실하였다. 예컨대, 다리와 그에 딸린 부분 명칭에 대한 조사에서는 오직 ‘다리’만을 알고 있었다. 그 하위어(정개(膝), 신다리, 장단지, 성문(정강이), 허퇴 등)는 모두 ‘다리’라 하였다. ‘눈’에 대하여 ‘눈썹, 눈뜨베, 눈사부리, 눈뿔, 눈초리 ……」의 조사에서도 상위어인 ‘눈’만을 알고 있었다. 또 ‘의자’, ‘책상’, ‘식탁’ 따위는 모두 ‘상’이라고 하였다.⁴¹⁾ ‘앉는 사이’, ‘쓰는 사이’, ‘먹는 사이’ 등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상위어와 하위어는 유개념에 속하는 상위어만이 남아 있다. 유개념과 종개념의 경우 종개념을 먼저 잊어버리고 유개념이 남으며, 유개념 중에서는 기초어휘 내지는 고빈도 어휘의 순서로 어휘가 잔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어법에서는 하대-평대-존대 중에서 평대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동사를 질문할 때에는 그 응답형이 모두 ‘하오, 비우오(<베우다, 보이오)와 같이 하오 체를 사용하였다. 불규칙형들은 형태론적 교체의 단순화 경향을 보인다.

3.5. 언어접촉과 고려말

고려말은 오랜 동안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아 왔다. 함경도 방언에는 19세기 이후부터 차용된 러시아어가 많아서 오구라(1927)부터 이들 차용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뒤 미승우(1987), Ross King(1996), 곽충구(1991, 1998a)에서 이들 차용어에 대한 조사 보고가 있었다.

한편, 니라리사(2002)는 고려말 화자의 일상적인 구어를 조사하고 문법·어휘적 특징을 기술한 논문인데, 소략하기는 하지만 언어접변 현상도 언급하였다.

40) 니라리사(2002)는, 친족호칭어에서 “젊은이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해도 친족명칭만은 고려말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기초어휘인 친족호칭어가 오래도록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1) 러시아어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친족명칭이나 차용어를 조사하고 여기에 러시아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고려말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고려말의 문법(상대 경어법)과 어휘 체계를 통하여 보여 주고 있다. 즉, 原함북방언과 고려말의 상대경어법은 ‘하압소, 하오, 해라’의 3등급이지만 ‘하오’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친족호칭어의 경우는 “젊은이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해도 친족명칭만은 고려말을 사용한다.”고 말한 것처럼 다른 어휘에 비해 오래도록 쓰이고 있지만, 이도 부모호칭어만은 러시아어 식으로 ‘마마mama’, ‘빠빠papa’라 한다는 점, 제수나 처남에 대한 친족호칭어는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는 점⁴²⁾, ‘말아매ka’, ‘말아바이ka’처럼 친밀감을 나타내는 러시아어의 어미 ‘-ka’를 결합시킨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어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음운 변이가 발견된다. 언어접촉에 의한 간섭(interference) 현상이다.

- (1) 러시아어에는 /w/는 없고 /v/가 있기 때문에, 고려말의 /w/를 /v/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⁴³⁾. 예, ve(오이) v̄eri s'áonara(오이를 사오너라).
- (2) 러시아어에서 [ŋ]은 /n/의 변이음이다. 시장에서 만난 40~50대 한인들은 동(董) 씨를 ‘돈 씨’, 홍(洪) 씨를 ‘혼 씨’라고 발음하였다.⁴⁴⁾ 예, sansenat'a (<상세나다<상스(喪事)+이+나다. 돌아가시다). 빠빠 반이(아버지 방이, 한글라피라)
- (3) 어말이나 자음 앞의 ‘ㄹ’을 [r] 또는 [r̄]로 발음한다.
- (4) 60대 이하 세대에서는 ‘ㅅ’뒤에서 ‘ㅣ’가 현저히 [i]로 들린다.

고려말 어휘는 함북 지역의 방언이 주종을 이룬다. 그런데 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신어의 등장은 필연적이거나 이를 고려말로 대체할 기관이나 교육 수단

42) 필자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손아래 친족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른다.

43) J.R.P. King(1995), 이기갑 외(2000), 니라리사(2002)도 그러한 예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Weinreich(1953)이 제시한 음간섭의 유형 중에서 음대치(phonetic substitution)에 해당한다.

44) Weinreich(1953)의 유형 중에서 불완전구별(underdifferentiation)에 해당한다.

이 전혀 없으므로 새로운 개념어들이나 문명어들이 러시아어로 대체되어 쓰인다. 그리하여 상당수의 러시아어 어휘가 일상적으로 고려말과 함께 쓰인다. ‘꿀까치기’(자치기) 따위와 같은 混種語도 보인다.

나는 영계서 오빠라찌(러, операция)르 했소(나는 여기서 수술을 했소).

나는 재비르 과찌라(러, квартира)르 샀소(나는 내 자신이 아파트를 샀소).

예문의 ‘오빠라찌’는 ‘手術’을 뜻하는 러시아어이고, ‘과찌라’는 ‘아파트’를 뜻하는 러시아어이다. 새로운 러시아어를 고려말로 대체하여 보급하는 기관이나 고려말을 교육하는 기관이 없으니 이처럼 직접 차용하여 쓸 수밖에 없다.⁴⁵⁾

3.6. 대비언어학과 고려말

북한, 중국, 중앙아시아에서 말해지는 이른바 ‘육진방언’은 본디 함북 육진 지역의 방언에서 갈려나간 변종들이다. 이 변종들은 이미 오래 전에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각기 다른 역사,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독자적으로 변화해 왔다. 따라서 이들 변종들의 분화를 밝히는 일도 하나의 연구 과제가 된다. 세 지역에서 비슷한 사회적 변인을 가진 제보자들을 선정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대조하면 그 차이가 잘 드러날 것이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 유지해 오고 있지만 구소련권은 그렇지 못하다. 구소련권에서는 공식적으로 1938년에 모든 한국어 교육을 폐지하였으며 고려말은 중국의 육진방언과는 달리 모국어와 격리된 채 변화해 왔다. 그리고 고려말은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의 조선어는 한어의 영향을 받았다. 북한은 주민의 이동이 있었고 또 60년대 중반부터 문화어운동을 전개해 왔다. 또 세 지역은 동일한 사회주의를 고수해 왔지만 그 체제는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세 변종은 일정한 차

45) ‘오빠라찌’는 고려말에 정착한 직접차용어. 1994년 필자의 조사에서 몇몇 제보자로부터 청취한 바 있는데, 니라리사(2002)에서도 나타난다. 러시아어 단어를 빌려 쓰는 이러한 예는 고송무(1990:128)에도 소개되어 있다.

이를 보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필자가 조사한 중앙아시아의 고려말과 중국의 두만강 하류 지역에서 조사한 육진방언을 대조하고 그 차이를 간략히 보여줬다.

3.6.1. 어휘상의 차이

한편 어휘는 지역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두 지역의 문화적인 차이는 어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예는 고려말에서는 쓰이고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을 보인 것이다.

1) 고본질⁴⁶⁾ : 영농 주체인 고려인이 가족 단위로 구성된 소공동체(브리гада)를 조직하여 농사철에 당사자의 거주지를 떠나,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영농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이동임차농업’이라 부를 수 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뜻이 번져나가 “①집을 떠나 고생스럽게 돈벌이를 함, ②보따리장사의 상행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뜻을 갖게 되었다. (전경수 편 2002:139-210)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독특하게 발달한, 자본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이동임차농업’ 제도로서 같은 사회주의권에 속하는 중국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고본(股本)+질’의 합성어로 ‘질’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뜻하는 접미사이다.

2) 부영눈 : ‘러시아 사람’을 이르는 말로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마우재(=毛子)’라는 말을 쓰는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이 ‘부영눈’이라는 말도 쓴다. 제보자는 ‘부영다’와 ‘눈(眼)’의 합성어로 이해하고 있다. 눈알 색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말로 보인다. 예: 발으 부영눈 발이터르 자래우겠냐? 부영눈 발이 크다구서르.(발을 러시아 사람 발처럼 그렇게 크게 키우겠느냐? 러시아 사람의 발이 크다고 하면서.) 오늘오느 부영눈이 많이 왔습더구마(오늘은 러시아 사람이 많이 왔더군요). 부영눈이 적게 멩게라(러시아 사람 집에 적게 다녀라)

46) 고본(股本)은, “예전에, 여러 사람이 공동 투자로 사업을 할 때에, 이들 투자자가 각각 내던 자본금. 또는 그 투자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

3) 돌궐(〔돌+궐〕+이) : 공기

현재의 동북 방언, 중국의 육진방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전남방언권에 〔독(石)+집-〕+suf.〕_N, 〔독(石)+춌-〕+suf.〕_N 유형의 방언형이 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이러한 형태의 방언이 분포하는 사실이 흥미롭다. 육진방언 화자인 한글라피라, 채안나 할머니의 말에서 ‘돌궐’, ‘돌찌기’(＜돌궐기)의 두 방언형을 조사하였다.⁴⁷⁾ 앞 분은 사말리 출신이고 뒤 분은 수청(현 빠르티잔스크) 출신이다. 원동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쇠째(쇠(鐵)+장(<당)+이), 쇠짱집(쇠+장+집) : ‘합석’과 ‘합석집’을 이렇게 부른다.

5) 샅개, 백개, 데놈 : 카자흐인, 우즈베키인, 중국인을 각각 낮추어 이르는 말.

6) 봉간 : 변소.

7) 몸글 : 신분 증명 문서.

3.6.2. 음운 상의 차이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말 중에는 러시아어의 간섭에 의한 음운체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w/를 /v/, /ŋ/을 /n/으로 발음하는 따위가 그 예이다.

2) 음운규칙에서 ‘ㅁ>ㅃ’의 변화는 중국의 육진방언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볼 수 없다.

3.6.3. 어휘의 보수와 개신

중앙아시아 고려말이 더 보수적이다.

1) 불술기/부술기⁴⁸⁾(=기차) : ‘불술기’는 중국의 육진방언권에서는 이미 사어화하였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흔히 쓰인다. 중국 조선족의 표준어 ‘기차’가 ‘불술

47) ‘돌궐’처럼 전남방언권과 육진방언권에 분포하는 방언형으로 ‘성문’(정강이)이 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 말미암은 것인지는 아직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48) 불술기는 함경도 방언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어휘이다. ‘불(火)+술기(車)’의 합성어로 일제 강점기의 이용악 시에도 등장한다.

기'를 밀어낸 것이다.

2) 절당⁴⁹⁾(<절당, 절(寺)+堂) : 교회(教會)

중양아시아의 한인들은 '교회'를 '절당, 절당'이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조선족은 '사찰'을 일컫는다. 어휘의 형식(form)은 그대로이고 의미만 바뀌었다. 신어를 만들기보다는 비슷한 속성을 지닌 기존의 어휘에 새로운 개념을 담아 의미 변화가 일어난 예이다. 같은 예로 '떡'이 있다. '러시아 빵'을 '떡' 또는 '마우재떡'이라 한다.

3) 층집/층대집/기관집/땅집

'아파트'를 중국에서는 '층집'이라 하는데 중양아시아에서는 '층집, 층대집, 과짜라(=kvarтира)'이라 한다. 중양아시아에서는 '기관집'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정부의 기관에서 지어 분양한 집'이라는 뜻이다. 단독주택은 두 지역에서 공히 '땅집'이라 부른다.

4) 유끼(=옷)의 형태

중양아시아에서는 손마디 하나 정도의 나무토막을 반으로 잘라서 옷을 만들어 논다 한다. 중국에서도 이전에는 그런 옷을 가지고 놀았지만(그것을 '짜리유끼'라 하여 '유끼'와 구분함)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나 '열콩'(강낭콩)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논다.

5) 어시 : '부모'를 뜻하는 고어로서 중양아시아나 중국에서 다 쓰이지만 그 빈도는 중양아시아가 더 높다. 중국에서는 '부모'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6) 지레 : 간장을 '지렁'(지레-주격형)이라 하는데, 중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고려말에서는 흔히 쓰인다. 같은 예로 '바당'(=바다)이 있다.

7) -보구 : '비교'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로 1세기 전 카잔 자료에 보인다. 고려말에서는 흔히 쓰이나 중국에서는 소수의 제보자만이 알고 있을 뿐 쓰이지 않는다

49) RKS, p. 130에 보인다. 한편, 小倉進平(1927:6)에 함북 회령, 종성, 경원 지방에서 '결당'이라 한다는 조사 보고가 있다. 小倉進平은, 이들 지역에 'ㄱ'구개음화(예: 겨(黈)>저)가 있기에 '덜당'을 '결당'으로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필자의 조사(중국의 육진방언에서도 原경흥, 온성, 종성, 회령 지역어 화자들은 거의 '결당'(寺)이라 하였다. 함북 방언에는 이러한 예가 다수 있다(곽충구 1994: 328-330).

다. 예: 내 동미 내보구 더 일으 많이 하오(내 동무가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하오).

4. 결론

제정 러시아 시기에 편찬된 각종 한국어 관련 문헌들은 러시아 극동 지방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일상적 구어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 한인들의 한국어는 대체로 함경북도 육진 지방의 방언이다. 이 방언은 보수적이어서 음운이나 어휘 면에서는 근대국어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자료는 육진방언의 방언사, 국어사, 국어방언학 연구에 소중하다. 이 자료의 일부는 랍스테트가 한국어의 역사와 계통을 밝히는 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1937년 강제 이주 후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은 모국어와 격리된 채 하나의 언어 섬을 이루며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중앙아시아에서 형성된 고려말은 육진방언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함경북도 각 지역 방언이 서로 뒤섞이면서 방언차가 극소화되고 수평화되면서 koiné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koiné 형태의 방언은 더 이상 확대 발전되지 못하고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극소수가 구사하는 고령층의 육진방언을 비롯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말하는 고려말은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아직도 조사·연구될 부분이 많다. 사회적 변인들을 고려한 전면적인 조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지 그 연구 주제가 될만한 것들을 소략하게 언급하였다. 주로 사회언어학적 관심사들 즉, 육진방언의 변종들에 대한 대비 연구, 언어접변, 고려말의 소멸 과정 등에 대한 연구는 일반언어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송무(1980), 『제정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연구』, 『한글』 169, pp. 193-212.
- _____(Kho, SongMoo) 편(1982), *Paralipomena of Korean Etymologies*, by G.J. Ramstedt, *MSFO* 182, Helsinki.
- _____(1984),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서울: 한국국제문화협회.
- _____(Kho, SongMoo)(1987), *Korean in Soviet Central Asia*, *Studia Orientalia* 61, Helsinki.
- _____(1990),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 곽충구(1986a), 『노한회화(해제)』, 『한국학보』 44, 일지사, pp. 206-220.
- _____(1986b), 『노한회화와 함북 경흥방언』, 『진단학보』 62, pp. 79-125.
- _____(1987), 『노한소사전의 국어학적 가치』, 『관악어문연구』 12(서울대 국문과), pp. 27-63.
- _____(1988), 『로한즈던의 한국어와 그 전사에 대하여』, 『이화어문논집』 11(이화여대), pp. 125-155.
- _____(1991/1994), 『함경북도 육진방언의 음운론』, 박사학위 논문(서울대).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국어학총서 21, 태학사, 1994]
- _____(1993), 『함경도 방언의 친족명칭과 그 지리적 분화』, 『진단학보』 76, pp. 209-239.
- _____(1994), 『카자흐스탄의 고려인과 고려말을 찾아서』, 『전망』 9월호, 대륙연구소, pp. 70-74.
- _____(1998a), 『육진방언의 어휘』,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pp. 617-669.
- _____(1998b), 『동북·서북방언』,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pp. 985-1028.
- _____(2000a), 『재외동포의 언어 연구』, 『어문학』 69, 한국어문학회, pp. 1-41.
- _____(2000b), 『함북방언의 비자동적 교체 어간과 그 단일화 방향』, 『21세기 국어학

- 의 과제』, 월인, pp. 1123-1166.
- _____(2000c), 『육진방언의 현상(現狀)과 연구 과제』, 『한국학논집』 34(한양대 한국학연구소), pp. 327-362.
- _____(2001),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 pp. 237-268.
- _____(2004),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역사와 그 성격』, 『관악어문연구』 29(서울대 국문과), pp. 127-168.
- _____(2005), 『육진방언의 음운변화—20세기 초로부터 1세기 동안의 변화』, 『진단학보』 100, pp. 183-220.
- _____(2006), 『초기 노한사전의 편찬 경위 및 체제와 구조』, 『한국사전학』 7, pp. 35-64.
- _____(2007), 『동북방언의 음성과 음운사』, 『제4회 한국방언학회 전국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김동언·러스 킹(2002), 『개화기 러시아 관련 한글 자료에 대하여』, 『한글』 255, pp. 205-262.
- 나라리사(2002), 『카자흐스탄 고려말의 문법과 어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 김올가(2001),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언어 문제 연구 : 1990년대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 김주원(2007), 『고려말 어두 비자음의 음성 특징』,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발표 논문.
- 김필영(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학교 출판부.
- 미승우(1987), 『함경도 사투리 속의 러시아말들』, 『어문연구』 5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205-215.
- 소신애(2005), 『공시적 음운변이와 통시적 음운변화의 상관성-함북 육진방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서강대).
- _____(2007), 『언어 변화 기제로서의 과도 교정 —20세기 초 함북방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183-207.
- 정용호(1988), 『함경남도 방언연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이기갑·김주원·최동주·연규동·이현종(2000),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한국어 연구」, 『한글』 247, pp. 5-72.
- 이기문(1972), 증정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병근(1980), 「동시조음 규칙과 자음 체계 : Prestopped Nasals를 중심으로」, 『말소리』 1, pp. 40-55.
- 이상근(1996),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 탐구당.
- 킹, 러쓰·연재훈(1992), 「중앙 아시아 한인들의 언어-고려말」, 『한글』 217, pp. 83-134.
- 차바실리(2001), 「카자흐스탄 고려말 교육 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 이광규·전경수(1993), 『재소 한인-인류학적 접근』, 서울: 집문당.
- 전경수 편(2002), 『까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학근(1977), 「M. 푸칠로의 『노한사전』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한득봉(1991), 「소련에서의 한국어 교육」, 『소련에서의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 이 중언어학회지 8.
- 허승철(1996), 「구소련지역 한인의 언어 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재외한인연구』 6.
- 황대화(1986), 『동해안방언연구-함북, 함남, 강원도의 일부 방언을 중심으로』,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빠뜨로와, 김수경 옮김(1956), 「로씨야와 소련에서의 조선어 연구사 개요」, 평양: 『조선어문』 1, pp. 67-78.
- 小倉進平(1927), 「咸鏡南北道 方言」, 『朝鮮語』 2, 朝鮮語研究會.
- _____ (1931), 「六十年前の咸鏡方言」, 『中等朝鮮語講座』.
- _____ (1944), 『朝鮮語方言の 研究(上·資料篇)』, 東京: 岩波書店.
- 菅野裕臣(1971), 「한국관계 노서아어 문헌목록(1854-1969)」, 『아세아연구』 44.
- Adami, N.R.(1982), “Die in Russland vor 1910 Erschienen Materallien zur Koreanischen Sprache-Lexicalisches”, in Hau, *Korea Kultur Magazin*, Heftz, pp. 50-60., Institut für Kor. Kultur:Bonn.
- Asher, E.R. et al. (eds.) (1994), “Koinés”, *The En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s*,

- Oxford: Pergamon Press.
- Back Tae Hyon(2001), "The Social Reality Faced by Ethnic Koreans in Central Asia",
Korean in the Former USSR,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2.
- Kang, G.V.(1994), *Koreitsy Kazaxstana*, Almaty.
- Kim Syn-Khva(1965), *Ocherki po Istorii Sovetskikh Koreitsev*, Alma-Ata.
- King, J.R.P.(1987), "An Introduction to Soviet Korean." *Language Research* 23 · 2, Seoul National Univ, pp. 233-274.
- _____ (1988), "The Korean Dialect Materials in Marveev's 1900 *Reference Book to the City of Vladivostok*", *Language Research* 24, Seoul National Univ, pp. 281-329.
- _____ (1989), "A 1902 Cyrillic-script Rendition of 'Little Red Riding Hood' in North Hamkyeng Dialect", in the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WOKL.
- _____ (1991a),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Doctorial dissertation in Havard Univ.
- _____ (1991b), "North Hamkyeng Pitch-Accent according to the Russian Source", Papers delivered at the ASKE Conference, March 22-26, 1992 in Dourdan, France.
- _____ (1991c), 『소련의 한국어학 연구: 과거, 현재 및 미래』, 『새국어교육』 47, 한국국어교육학회, pp. 245-548.
- _____ (1992), "Archaisms and Innovations in Soviet Korean Dialects." *Language Research* 28 · 2, Seoul National Univ, pp. 201-223.
- _____ (1994), "Dialect Elements in Soviet Korean Publications from the 1920s." In: Howard I. Aronson (ed.), *NSL 7: Linguistic studies in the non-Slavic language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the Baltic Republics*, published by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Illinois, pp. 151-183.
- _____ (1996), "Russian Loanwords in Hamkyeng and Soviet Korean Dialects.", 李基文 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pp. 939-966.
- _____ (2001a), "Blagoslovennoe: Korean village on the Amur", 1871-1937. *Review of Korean Studies* 4 · 2 (December), Korea: Academy of Korean Studies, pp. 133-176.

- _____ (2001b), [co-edited with German N. Kim]. *Koryo Saran: Koreans in the Former USSR*. Special issue of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2, published by the East Rock Institute, New Haven, Connecticut.
- _____ (2003), "Is "Koremar" a Koiné? Language Contact and Language Enclave Phenomena in 'Soviet' Korean",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발표 초록.
- Kirillov, A.(1894), *Geograficheskoye-Statisticheskij Slovarj Amurskoj i Primorskoj Oblastej*, Blagoveshchensk.
- Men, D.V. et al.(eds.) (1992), *Sovetskie Korejtsy Kazakhstana*, Alma-ata.
- Koncevich, L.R.(菅野裕臣 譯註)(1971), 『소련의 한국어학』, 아세아연구 14·4(통권 42).
- Pak, N.S.(1991), "On Korean Dialects in the USSR", 이중언어학회지 8.
- _____ (1995), "Tendentsii Razvitija Kore Mar", *Xabarlary-izvestija*, Natsionalnoj Akademii Nauk Respubliki Kazaxstan, Serija Obschestvennyx Nauk. pp. 21-29.
- _____ (1996), "Korean Kinship Terminology(Yukchin Dialect of Kore mar)", *Izvestija Koreevedenija Kazaxstan*, Vypusk 1, Almaty, pp. 87-99.
- _____ (1997), "Divergent Processes in Language Development(Yukchin Dialects)", 李基文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pp. 1050-1061.
- _____ (1997), "Besonderheiten der Kasusformen des Yukchin-dialects des Koreanischen in Kazachstan", 국어학논집 3, 태학사.
- _____ (2001), "Jazyk-Variant Jazyka-koiné-Dialect." The Second Kazakhstan- Korean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and Central Asian Region* N 2. Almaty.
- _____ (2004), "Problema Ischeznovenija Minoritarnyx Jazykov", Avtoreferat Dissertatsija na Soiskanie Uchenoj Stepeni, Doctora Filologicheskix Nauk, Almaty.
- Puttillo, M.(1874), *Opyt Rusko-Korejskago Slovarja*, S. Peterburg.
- Siegel, J.(1985), "koinés and koinéization", *Language in Society* 14·3.
- Toivonen, Y.H.(1950), "Gustaf John Ramstedt", Discours Commémoratif Prononcé 2. 12. 1950, À L'assemblée Annuelle de La Société Finno-Ougurinne[G.J. Ramstedt 論文集, 太學社, pp. 409-427].

- Vovin, A.V.(1989), "Some Data on the Soviet Korean Language", *Language Research* 25-2, Seoul National Univ.
-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New York: Linguistic Circle of New York, No. 1.
- Xolodovich, A.A.(1954), "Fonetica Severnyia dialektov", *Očerki Grammatiki Korejskago Jazyka*, Moskva.

원고 접수일: 2007년 9월 30일

게재 결정일: 2007년 11월 12일

ABSTRACT

Data and Ressarches for Korean dialect in Central Asia

Kwak, Chung-Gu

The some documents compiled in the period of Russian Empir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show dialects of Koreans which had lived in the Russian Far East. The Korean dialects in them are generally Yukcin Dialect in Hamgyeong North Province. The Yukcin dialect is so very archaic that it is similar to phonemic system of the sixteenth Korean. This Yukcin dialect data is important to study Korean Language. The first bilingual dictionary of Korean, Russian-Korean dictionary compiled by Putsillo was based on Yukcin dialect spoken in the Russian Far East. G.J. Ramstedt used these Yukcin dialect materials for studying history and genetic relation of Korean.

After forced deportation to Central Asia from the Russian Far East in 1937, *Koryeo-mal* was isolated and has been developed independently in the form of language island. *Koryeo-mal* which was based on Yukcin dialect was formed by effect of various dialects, and experienced levelling and gradually developed to koiné. Such a koiné type *Koryeo-mal*, was no more expanded and is disappearing. *Koryeo-mal* including Yukcin dialect has been studying by some scholars and exposed, but there are something to have to study more. Firstly, it needs to survey and research to *Koryeo-mal*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social variables, in other words, socio-linguistical tasks as like contrast studying to varieties of Yukcin dialect(Central Asia, China, North Korea), language acculturation, disappearing of *Koryeo-mal* etc.